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1)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오사카시(大阪市)와 가와사키시(川崎市)를 중심으로-

황 혜 경*

(e-mail : hhk5500@hanmail.net)

目 次

1. 서론
 2. 재일코리안의 역사 및 형성과정
 3. 민족축제의 생성
 4.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와 호스트 사회와의 관계
 5. 결론
-

1. 서론

민족의 문제는 21세기를 맞아 오늘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냉전 체제에서, 패권을 쥔 나라의 강제 하에 표면적으로 억누르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정권이든 자본주의 정권이든 국민국가 안팎으로 민족 간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경을 넘는 노동인구의 이동도 주목할 만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호스트 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민족 간의 마

* 남서울대학교 강사

1) 축제는 일본에서 마쓰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용어는 문화제,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축제의 명칭은 본래 축제 고유 명칭을 살려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동향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식민지 문제는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민족문제를 국민국가의 내부에 안고 있게 된다. 재일코리안 문제는 이러한 식민지 역사를 통해 창출되는 오늘날의 민족 문제의 하나이다. 식민통치 이후 이미 1세기 가까이 지나, 독립 후에도 이미 반세기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재일코리안이라는 통칭처럼, 일본에서도 민족문제가 해소되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반세기라는 시간의 경과를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민족축제를 통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각지에서 정치적으로 공생사회와 다문화사회 실현 등의 슬로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 시점에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는 1980년대에 생성되기 시작되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알리고 표출하는 것으로 재일코리안들의 굳은 의지와 그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민족축제문화가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호스트 사회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오사카시(大阪市)와 가와사키시(川崎市)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재일코리안의 연구는 교육면·사회면·정치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970년대까지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상징인 강제연행의 문제가 거론되어왔고, 이어서는 일본 정주외국인의 법적지위, 인권문제, 불평등 등의 연구가 되어왔다. 1990년대 전후로 민족운동, 민족교육, 귀국과 귀화의 의지 등의 의식에 관한 조사가 행해졌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와, 재일코리안의 지방참정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²⁾.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고, 대표적인 연구로는 金(1985), 江口(1994), 飯田(2006)를 들 수가 있다. 이 연구들은 오사카시에 한정된 민족축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를 포괄할 수가 없다. 본 논문은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의 민족축제를 비교함으로써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의 의미와 이 축제를 통해 호스트사회와의 관계를 검토해 볼 수가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연구대상지역으로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선정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 번째는 두 지역은 재일코리안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두 번째는 두 지역은 근대 공업지대형성과과정에서 노동자로서 모집되거나, 강제연행에 의해서 일본에 건너온 코리안, 혹은 그 자손들이 많고, 공업지대에서 일했던 코리안이 많았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코리아타운이랑 코리안 상점이 형성되어 재일코리안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다.

2) 재일코리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 논문(황2001, 2002a) 참조.

이 논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2007년 10월부터 11월 축제기간동안 참여관찰 및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2009년 7월에 보충조사를 통해서 완성했다.

2. 재일코리안의 역사 및 형성과정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역사

재일코리안 형성과정에 관해서朴(1979)과杉原(1991)의 연구에 근거해 도향현황을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첫번째 시기 (1909년 이전)는 한일합병 이전으로 조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본 거주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두번째 시기 (1910-25년, 유치기)는 전기와 후기로 세분된다. 전기(1910-19년)는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조선인의 일본 입국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인구가 부족한 일본기업이 조선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1919년까지 거주 인구는 3만 6천명이고, 남성 혼자서의 이주가 대부분 이었다. 후기(1920-25년)가 되면 1918년 미국 파동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식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내놓은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 농촌사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1925년에 18만 7천명에 이른다.

세번째 시기(1926-38년, 억제기)는 1926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조선농가에서 살기 힘들게 되어, 일본에 건너가는 사람이 많았다.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국가총동원법 시행직전까지 거주인구의 변화는 1930년 약 41만 명에서 1938년 약 88만 명으로 급증했다.

네번째 시기 (1939-45년, 강제징용기)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및 1939년 국민징용령을 받아 이른바 강제연행이 시작된 시기로 거주인구의 연평균 증가수는 2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것으로, 1945년에는 약 210만 명에 이른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

1945년 일본의 패전당시 재일코리안은 약 210만 명에 달했다. 그 중 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국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남은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과 후손이 남아 일본에 정착하게 되어, 전후의 인구는 60만 명 안팎을 지속하고 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 재일코리안은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역사적인 특수 조건을 무시하고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 약 반세기 살았던 재일코리안과 그 자손은 위상이 변하고 외국인으로 처우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각종 제도적 제한, 차별이 생겨났다. 동화·억압 정책은 전쟁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일본인의 조선인 멸시와 차별은 끊이지 않았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참정권 문제·고용·생활 등의 차별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일코리안은 차별에 저항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 재일코리안 형성과정

(1) 오사카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밀집지역 형성과 현황

오사카시 재일코리안 형성과정을 杉原(1991)에 의하면 오사카시 조선인 노동자의 등장은 1910년 이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한일합병 이후이다. 1911년 셋쓰(摂津)방직공장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자진 이주하려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권유와 모집에 의해서 왔다. 1920년대 들어 더욱 입국 촉진요인으로, 한신(阪神)공업지대의 중요한 거점인 오사카 공업도시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노동력 공급이 요구되고 토목 건설, 섬유 산업을 비롯한 소규모 공업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몰려 들어왔다. 또한 한신공업지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찾아 오사카방직 등이 제주도 들어가서 직공 모집 등을 실시했다. 한편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경제상에 절실한 요구, 즉 수입 확보가 필요했었다. 오사카 측의 노동력 수요와 제주도민 측의 입국 희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주도 도청에 의한 도항장려정책을 들 수가 있다. 1923년 제주도-오사카 간의 직행항로 개설을 계기로 오사카에 도항이 매우 쉽게 되었다. 그 결과 1934년 당시 일본에 체류하는 재일코리안 인구는 53만 8천명으로, 그 중 오사카 거주 재일코리안은 17만 1천명으로, 약 32%가 오사카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오사카에서도 이쿠노구(生野区)에 재일코리안이 가장 밀집되어있다. 이쿠노(구, 猪飼野)에 언제부터 재일코리안이 형성되었는가 하면 히라노강(平野川)개수공사에 종사했던 조선인이 이쿠노구에 살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쿠노구는 다이쇼(大正)말기, 3~4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는데, 이것은 히라노 운하공사를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모인 것이 기원이 되었고, 공사완료 후에도 운하를 따라서 이쿠노일대에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1923년 제주도-오사카 항로 개설을 계기로 인구는 급증했다. 제주도에 직접 가서 사람 모집에 나선 것은 간사이방직(関西紡績), 방직(紡織), 조선(造船), 제강(製鋼) 관련기업이

었다. 대부분이 가장 하층 노동자로, 이쿠노구 주변에 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오사카에서 재일코리안 인구는 9만 4천 명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쿠노구만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인구의 약 40%가 밀집되어있다.

(2)가와사키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밀집지역 형성과 현황

가와사키시의 재일코리안 형성과정에 관해서, 川崎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編(1993)와 神奈川の中の朝鮮編集委員会編(1998)을 참고하여 개관해 보기로 한다.

가와사키시에는 현재 약 9천명의 재일코리안이 거주하고, 그 절반 이상이 케이힌(京浜)공업지역에 속하는 남부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재일코리안의 가와사키로 이주는 1910년대부터 시작되어, 케이힌공업지대의 발달과 1924년 시의 정책이 시행된 가와사키시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1910년 이후, 가와사키시 남부에는 일본강관(日本鋼管)을 비롯해 후지방적(富士紡績), 스즈키(鈴木)상점 (현,味の素), 도쿄(東京)전기 (현, Toshiba)의 공장진출에 이어, 1917년에는 아사노(浅野)시멘트 (현, 第一セメント)가 다지마(田島)마을에 공장을 건설했다. 1919년, 다마가와(多摩川)에서 채취한 자갈을 운반하기 위해서 다마가와자갈철도(주)가 설립되었고, 이 시기에 다마가와 자갈 채취인부로 재일코리안이 일하고 있었다. 즉, 가와사키시의 재일코리안은 케이힌공업지역 초창기 시절부터 거주했고, 공장 건설을 위한 인부나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 가와사키지역에도 지진방지 재건사업에 따른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 1931년 만주사변발발에 의한 군수생산의 증대와 함께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로 했다. 1939년에 강제연행이 시작되자, 일본강관은 현재 이케가미초(池上町) 일대를 인수하고, 군수공장 (현, 京浜製鉄所六管工場) 건설에 착수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 재일코리안이 집중적으로 증가했고, 전쟁말기에는 아마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재일코리안이 이 지역에서 노동했다고 짐작 되어지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은 재일코리안에게는 해방이었고,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 되어온 사람의 대다수가 혼자여서 가족을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당수의 재일코리안이 남았다.

현재 가와사키시의 재일코리안 인구는 가와사키구에 집중되어있다. 그 이유로 가와사키구는 공장지대이고, 모집 또는 강제연행에 의한 재일코리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남은 사람도 같은 고향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민족축제의 생성

재일코리안 축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일본에서 최초로 생긴 것은 1983년 오사카시에서 개최된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이다. 이것을 계기로 1990년대 이후 「○○마당」이라는 축제가 관서지방(교토, 오사카, 고베)을 중심으로 생겨났으며, 가와사키, 나고야, 후쿠오카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들 마쓰리는 각각의 지역 안에서 지역 사람들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들 민족축제가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오사카시의 대표적인 민족축제인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 원코리아 페스티벌(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 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生野 코리아타운 共生祭) 와 가와사키시의 대표적인 민족축제인 아리랑제(アリラン祭), 일본 마쓰리(日本のまつり)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오사카시

(1)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

일본에서 1983년에 최초로 생겨난 재일코리안 만의 축제이다.

이쿠노민족문화제는 1983년 오사카시 이쿠노구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된 이래, 2002년까지 장소는 이쿠노구에 있는 학교 교정에서 개최되었다. 아쉽게도 2002년 20회로 끝났지만, 이 축제가 재일코리안 민족축제의 큰 기둥이 되어준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이쿠노민족문화제 창시자인 김(1985)에 의하면 재일코리안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이카이노(猪飼, 현 이쿠노구) 지역에서 코리안 축제가 1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재일코리안 1세의 말이 계기로 김덕환씨는 동료들과 민족문화제 개최를 기획했다. 재일코리안 2세인 김덕환씨도 어린 시절 재일코리안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고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었다. 하지만, 전통문화인 농악놀이의 광경을 보면 자기자신의 자각과는 다른 민족적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본인도 차별과 편견에 의해 부정적으로 밖에 민족적 자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생활 터전에서 기쁨을 갖고 민족적 자각을 느끼게 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체험시키고 싶다는 의지로 만든 것이다. 그는 민족문화제의 목적의 근본은 「부(負)」의 극복으로 보고, 우리들 재일코리안이 민족적 자각을 갖는 많은 경우가 과거의 역사 그것도 근대의 불행한 역사 혹은 일본사회에서 받은 많은 민족차별에서 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부(負)」의 체험을 통해서였다.

이쿠노족문화제를 창시한 김덕환씨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즐겁게, 마음 속 깊이 민족문화를 접하면서 민족적 자각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쿠노민족문화제의 표어인 「하나가 되어 기르자! 민족의 문화를! 마음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을 마음속으로 바라며, 일본사회의 혹독한 차별과 억압에 의해 빼앗겨 온 민족성을 회복해 가기위한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축제가 처음 시작 될 때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나는 재일코리안 자신들의 정치적 문제로 민단인지 총련인지에 민감하였으나, 이 축제는 어느 쪽도 아닌 재일코리안의 공통 문화축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기까지 힘들었다.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의 일본주민의 반대였다. 공원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원은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곳이다」라고 거절당했다. 즉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재일코리안은 지역 주민이 아닌 것 이었다. 학교를 빌려서 사용할 때도 지역주민들은 「이 학교는 일본인 일본의 학교로 재일코리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거절당해서 고충도 많았다. 하지만, 주변 학교의 따뜻한 배려로 축제를 이어갈 수가 있었고, 매년 개최되면서 지역의 독특한 축제로 받아들여졌다.

이 축제의 참가 대상은 재일코리안만 가능하다. 주변의 차별적인 일본문화내지 일본사회에 대항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민족문화를 강하게 자각시키는 것으로 일본인은 참가 할 수가 없다.

표1 이쿠노민족문화제 18회(2000년)

10월 28일 (토)	
PM 3:00	지역농악퍼레이드
10월 29일 (일)	
AM 9:30	지역농악퍼레이드
10:00	고사
10:15	강강술래
11:35	놀이대회
PM 12:35	탈춤
12:55	노래자랑
1:50	마당극
2:50	대농악
3:30	강강술래
4:00	폐회

이 축제 프로그램을 표1과 같이 보면 이들간의 일정으로 첫째 날은 코리아 타운이 있는 미유키모리도오리(御幸森通)를 지나서 농악퍼레이드로 오프닝을 한 후, 둘째 날은 농악퍼레이드에 이어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풍물놀이(농악, 탈춤), 민속놀이(웃놀이, 팽이, 공기, 장기) 놀이대회(씨름, 닭싸움, 널뛰기), 노래자랑, 마당극과 먹거리 가게가 준비하게 늘어서게 된다. 특히 이 축제에서 중요시되는 「고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 땅에서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것이다. 또한, 이 축제의 성공과 참가자, 이 축제를 관람해 주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한다.

2000.10.29 당일 배포된 자료에 의해 작성

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풍물놀이에 참가한 경우는 매주 일요일에 만나서 연습을 하기도 한다. 연습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재일코리안임을 인식하게 된다. 연습을 하기위해 만난 모임 자체도 재일코리안에 있어서는 큰 안식처의 역할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오사카시의 재일코리안 형성과정에서 본바와 같이 이카이노(猪飼、현 이쿠노구) 라는 지역은 재일코리안의 히라노강(平野川) 개수공사 때 최하층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터전을 마련한 재일코리안의 눈물과 설움의 한이 가득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 땅에서 우리 재일코리안 만의 버팀목,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을 갈망했던 사람들의 결실이 축제의 스타트를 끊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진1 이쿠노 민족문화제 농악놀이 · 교사 (2000년 필자 촬영)

(2) 원코리아 페스티벌(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

이 축제의 원코리아의 원, 하나(통일)는 재일코리안 끼리의 화해와 교류, 통일 의 문자 그대로 심볼이 되고 있다.

1985년 광복40주년을 맞이하여 대립에서 대화, 분단에서 민족통일(원코리아)을 향한 새로운 전망을 적극적인 미래 창조의 자세로 이끌어 가기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참신한 발상으로 「8.15 <40>민족·미래·창조 페스티벌」이 오사카성 야외 음악당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1990년에 원코리아페스티벌로 개칭되어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통일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먼 이미지가 강했지만, 그것을 축제의 공간에서, 특히, 21세기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가 민족에 관심을 가져 통일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독자적인 재일코리안의 생활에 맞는 통일전망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민족·미래·창조」의 주제에 근거해 민족음악이나 민족무용으로 시작해, 가곡, 재즈, 락, 샹송, 혹은 연극, 패션 쇼, 제품 전시회 등, 여러 가지 장르와 분야에 걸쳐서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한다³⁾. 그것들은 재일 2세와 3세에 놀려 고정화 되어 있

표2 원코리아페스티벌 16회(2000년)

AM 11:00	오프닝
11:30	원코리아 풍물 퍼레이드
PM 12:00	무대공연
	1. 민요 메들리
	2. 일본무용
	3. 경기민요 메들리
	4. 신인라이브
PM 13:00	종료
13:00	서브스테이지 공연
14:00	축구대회 관련 세레머니 추첨행사 자선경매 토크쇼 표창식
15:30	종료
15:50	무대공연
	1. 한국무용
	2. 조선무용연구소
	3. 아리랑 합창
	4. 황금코스
	5.오사카메아리 민요회 합창
	6.휘날레(우리의 소원 전원합창)
17:00	완료

2000.11.5 당일 배포된 자료에 의해 작성

무대공연으로는 코리아 전통민요에서 일본무용,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는 민족이미지를 넘어 밝고 대담하게 자신의 민족 이미지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민족에 관한 것을 기본으로 한 미래지향의 창조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 통일 전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일코리안의 생활을 향상시켜, 민족 차별을 없애며, 모든 권리를 획득하기위한 재일코리안 운동에 있어서, 통일 조국이 강력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한다⁴⁾. 38선이 없는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이 먼저 하나가 되어 원코리아의 상징이 되어, 본국남북, 동포의 중간 역할로서 원 코리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시민」 창출을 위한 「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전망한다.

현재는 원코리아의 하나는 재일코리안의 화해와 교류의 상징 뿐 만 아니라, 조국에서도 남북 교류와 통일의 상징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⁵⁾.

표2의 원코리아페스티벌 일정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전 11시에 오프닝을 한 후, 원코리아 풍물 퍼레이드로 시작을 한다.

3) 원코리아 페스타발 1985년 제 1회 취지문·성명문 참조.
4) 원코리아 페스타발 1986년 제 2회 취지문·성명문 참조.
5) 원코리아 페스타발 2009년 제 25회 취지문·성명문 참조.

있는 대중문화, 신인라이브 등의 여러 가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후에는 축구대회 관련 세레머니와 자선경매, 토크 쇼 같은 흥미거리와 민족 무용, 민요합창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은 남북대립을 넘어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원코리아 의식을 축제를 통해서 형성하고자 한 것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 힘을 키워 민족 차별에서 벗어나, 재일코리아인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세계시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2 원코리아페스티벌 전통무용 · 풍물퍼레이드(2000·2001 필자촬영)

(3)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生野コリアタウン共生祭)

이쿠노코리아타운의 미유키도리히가시(御幸通東), 미유키도리쥬오(御幸通中央), 미유키도리(御幸通)의 3개 상가의 합동에 의한 이벤트 「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축제 2009」가 오사카시(大阪市) 이쿠노구(生野区)의 미유키도리(御幸通)상가 일대에서 11월15일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재일코리아인과 일본인 상점주들의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 탓에 그동안 상점가별로 개최됐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으로서 이미지를 정착 시

표3이쿠노코리아타운공생마쓰리1회(2009)

<p>[스페셜 이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패션쇼 (새 한복 발표회) · 임지훈(가수) 배도환(배우) 토크쇼 · 한국 2박3일 페어 여행권. 그 밖의 다른 1000명에게 경품당첨의 추첨! · 당일 한복입고 방문하신 분, 선착순 100명에게 쇼핑 상품권 증정. <p>[오프닝 퍼레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시립미유키모리소학교(御幸森小学校) 민족학급 · 오사카 조선제 4 초급학교 · 백두(白頭)학원 건국(建国)소학교 · 이쿠노 신 무용 <p>[무대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보 밴드 라이브 · 아저씨 밴드大池중학교 PTA 라이브 ·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단독무대 (무용) · 김희옥 한국무용연구소(무용) · 안성민 판소리 · 강지순 라이브 · 금강학원 초등학교 무용부 (부채춤 & 사물놀이) · 히가시오사카東大阪)조선중급학교 (민족악기 연주) · 코우시장구 교실 (굿거리와 휘모리장단) · Ange발레 · 코리아무용단 (한국무용 및 사물놀이) · 이카이노(猪飼野)보존회 단지리바야시 · 가와치 합창 · 가라오케 대회 <p>[전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용준 팬들이 그린 일러스트 전시회 · 남북코리아와 일본어린이 작품 전시회 <p>[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효미씨 민화 워크숍 · 화재방지 대책 워크숍 · 폐유 재활용 (식용유).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식용유를 페트병에 넣어 지참 (소품증정)
--

2009.11.15 당일 배포된 자료에 의해 작성

켜오는 과정에서 한류 붐이 일어난 점을 고려해서 3개 상점가 임원들이 2008년 봄부터 모임을 갖고 축제의 공동개최를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다문화공생 마을 만들기를 더욱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이 있는 오사카시 이쿠노구 미유키모리 상점가에서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려고 3개의 상점가의 협력과 협동관계를 다져, 2009년 3월 6일 「이쿠노코리아타운 클럽(生野コリアタウン倶楽部)」이 출발되었다.

목적은 3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이쿠노코리아타운의 매력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높인다. 둘째는 NPO·기업·행정 등의 관계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이쿠노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이쿠노지역의 매력을 발견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가를 촉구하고, 시민 간의 유대를 높인다.

셋째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다문화공생을 향한 깨달음, 만남, 협동의 장소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6).

특히, 확인하고 당부하는 내용

6) www.korea-ngo.org 참조.

으로 코리아와 일본 양쪽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공생의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류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스페셜 이벤트로 한류 스타들이 등장한다. 오프닝 퍼레이드로 일본계 학교인 오사카시립미유키모리소 학교(御幸森小学校, 조총련계 학교인 오사카 조선 제4초급학교(大阪朝鮮第4初級學校), 민단계 학교인 백두학원 건국초등학교(白頭學院建國小學校) 학생 등의 퍼레이드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무대공연으로는 라이브 공연과 각각 한국·조선무용과 사물놀이 외에 가와치(河内)합창과 단지리바야시(檀尻囃子)공연이 실시되었다. 전시회에 있어서도 한류하면 배용준을 연상하듯이 팬들의 전시회와 남북코리아와 일본 어린이들의 각각의 전시회가 열렸다.

또한 이날은 부침개, 떡볶이 등 한국요리를 판매하는 노점에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기를 누렸다.



사진3 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 풍물놀이 · PTA라이브 공연
(2009년 오사카미나미 블로그 촬영7)

2)가와사키시

(1) 아리랑제(アリラン祭)

아리랑제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해주는 민족문화제」로 가와사키시 시립 노동회관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재일코리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의 시립고등학교 조선문제연구소와 조선문화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와 공동 주최되고 있으며,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교육위원회, 가와사키시 교직원 조합회, 가나가와현 고등학교 교직원 조합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 축제는 재일코리아인학

7) www.minami.areablog.jp 참조.

생, 일본학생, 교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표4 아리랑제 7회(2000년)

·개회사	
·인사	아리랑 축제 실행위원회 가와사키(川崎市)시 교육위원회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교육위원회
·한국민요-	다이시(大師)고등학교 조선문화연구회
·태권도	합 동
·부채춤·농악	사쿠라모토(桜本)중학교 한·일우호동호회
·창작극	합 동
·밴드연주	가와사키(川崎)고등학교 조선문화연구회
·체험발표	
·풍물놀이	합 동
·참가자 자기소개	
·폐회사	

2000.3.20 당일 배포된 자료에 의해 작성

고등학교 조선문화연구회의 한국민요와, 태권도 공연, 사쿠라모토(桜本)중학교의 한·일우호동호회의 부채춤과 농악놀이가 있었다. 창작극 공연에서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재일코리안의 차별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극에서 다룬다. 또한, 체험발표 때는 재일코리안의 어렸을 때의 차별체험의 소개나 극복했던 계기, 일본인 학생의 한국문화 체험담 등이 발표되어졌다.

그리고 참가자 자기소개에서 본명을 밝히며, 재일코리안 임을 친구들한테 처음 고백하는 등,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된다.

(2)일본 마쓰리

아리랑은 고난의 길을 가는 민중의 한을 담아서 불러 내려왔던 한국의 민요이다. 쌓였던 「한」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러한 뜻에서 아리랑제는 한을 푸는 장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민족을 넘어서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고,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이 장소를 만들게 되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온 재일코리안 3세·4세·5세 들이 민족문화를 즐기면서 계승해 가는 자부심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이 같이 참가해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서로 존중할 기회를 만들어 다문화·다민족 공생의 모습을 목표로 한다⁸⁾.

2000년 제7회 아리랑제에서는 개회사 축사에 이어서 다이시 고

8) 제 7회 아리랑제 팸플릿 참조.

일본 마쓰리는 사쿠라모토상점가진흥조합(桜本商店街振興組合) 주최로 1983

표5 일본 마쓰리 23회 (2007)

[거리 이벤트]	
9:30	鼓友会 (こゆうかい) 북연주
9:45	요료야마 hare 클럽 퍼레이드
10:00	大師地区(다이시지구)일륜차 클럽 UDA 퍼레이드
13:00	Redwings 퍼레이드
14:30	풍물 (한국 · 조선 전통농악)
15:40	桜友会 미코시(神輿) 鼓友会 太鼓
[무대 공연]	
10:20	보육원 풍물놀이
~10:40	Dagat 필리핀 민족무용
10:45~11:15	이코이 실버하모니밴드
11:20~11:30	일본무용
11:35~11:45	댄스
11:50~12:05	복화술(腹話術)모임의 공연
12:10~12:25	브레이크댄스
12:30~13:00	힙합 스타디움 BLAST
13:10~13:30	鼓友会 연주
13:40~14:35	Black Shisa 연주
14:50~15:10	笑鼓楽(シヨコラ)연주
[종일이벤트]	
구복신(九福神)둘러보기, 미니동물원 바둑장기, 벼룩시장 등	

2007.11.17 당일 배포된 자료에 의해 작성

행해진 것이 일본 마쓰리의 스타트이다.

지역주민의 새로운 요구해 대응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1999년 「제2기 근대화 사업」으로 구복신(九福神)을 마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마을의 상징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배려한 보도를 개수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메인 아치(白虎門) 서브아치(朱雀門·青竜門) 개수 등, 지역을 활성화 함과 동시에 상점가에

년에 개최되었다. 제일코리안이 많이 생활하는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 상점가에서는 한 반도의 풍작을 지원하는 풍물놀이 등의 전통 예능이나 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로 상점가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상점경영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시작해 2009년에 25회를 맞았다. 지금은 상점가의 가을행사로 정착되었다. 1983년과 1999년에 각각 대규모 제1기·제2기 근대화 사업을 실시했다. 1983년 대형 상점개점을 계기로 상점가에 「제1기 근대화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상점가 만들기 와 지역사회와의 교류축진을 추진했다. 「일본 마쓰리」나 「민요 틀어놓기」 등의 지역사회와의 교류축진을 위한 이벤트나 스태프 등의 판매축진 사업에 들어가 지금도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을 목표로 실시해, 상점가를 쇼핑의 장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교류, 안식처, 즐길 수 있는 장소, 고향으로 불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서 개최된 많은 이벤트도 활성화 시켰다.

일본 마쓰리는 사쿠라모토 상점가에서 행해지는 지역밀착형 마쓰리로 상점가 내의 통칭 「L로드」에 있어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첫째 날은 상점가에서 「30년 전의 가격으로 도전」이라고 내걸고 타임 슬립 바겐이 개최되어, 가게 앞에는 세일 품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다. 오후 2시에 시작하여 품절될 때까지 한다. 둘째 날이 일본 마쓰리로 「L로드」가 축제 장소로 바뀐다⁹⁾.

표5와 같이 鼓友會의 북연주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퍼레이드에 이어 지역주민들이 선명한 민족의상을 입고, 한반도 농촌에서 전해진 풍작기원의 풍물놀이를 연주하면서 퍼레이드 한다. 그리고 미코시의 행렬 등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무대공연으로는 보육원 아동들의 풍물놀이와 필리핀 민족무용, 일본 무용 등 다양한 민족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재일코리안 형성과정에서 본바와 같이 사쿠라모토는 재일코리안이 많은 지역으로 일본 마쓰리는 지역 사람들이 함께 서로 교류하고 즐기면서, 앞으로의 사쿠라모토상점가진흥조합의 발전을 위해 안과 밖으로 어필할 목적 하에 개최되고 있다.



사진4 일본 마쓰리의 풍물놀이 (1999년, 2002년 필자 촬영)

4.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와 호스트 사회와의 관계

지금까지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 민족축제가 일본 호스트사회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9) www.city.kawasaki.jp.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청 가와사키구의 보물 시트 참조.

호스트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에 관련해 에부치(江渚, 1985)는 소수민족이 차별, 굴욕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술로 일반적으로 3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확립된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에 몰래 잠입하는 즉, 「패싱」하는 것이다. 그래서 패싱은 개인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에서 경계를 넘어 다수 집단(호스트집단) 속으로 잠입하고, 소수민족임을 감추고 다수집단이 되어 사는 방법이다.

둘째는 소수민족의 지위를 감수하고 자신들의 문화적인 특성은 은밀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즉, 「겉문화」와 「속문화」로 나뉜다. 그것은 다민족 사회에서는, 특히 낮은 지위에 위치한 소수민족이 갖는 문화적 모든 특성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 겉으로 표출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속문화(자기문화)」에서, 또한 그 집단성원의 내부만으로 은밀하게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억제, 자 문화 은폐와는 정반대의 공공연한 「소수민족의 자기주장」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처럼 호스트사회에서 소수민족이라는 낙인(Stigma)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동화되거나, 명확하게 자기를 표출하거나, 호스트사회와의 표면적인 공생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2006, 2007)에 의하면 제일코리안과 호스트 사회와의 관계에서 오사카시와 가와사키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었다. 한국·조선계의 상점분포와 식재료 전시판매 방법¹⁰⁾과 앙케트조사에 의한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표출방법¹¹⁾, 선행연구 및 사회 통계를 통해서 사회적 환경¹²⁾을 보면, 오사카시의 경우는 제일코리안의 일상생활에서 외부에 신경쓰지

10) 오사카시: 축제가 행해지는 코리아타운에 50점포 이상의 한국·조선계 상점이 늘어서 있다. 주로 손님의 70~80%정도가 제일코리안으로 상점 식재료의 전시방법은 외부에 신경쓰지 않고 대부분 한국 재래시장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와사키는 축제가 행해지는 상점가와 코리아타운에 20점포 전후의 한국·조선계 상점이 늘어서 있다. 손님은 일본인이 80~90%로 일본마트 전시방법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전 논문(황2007)참조.

11) 데이타의 분석에 의하면 본인이 코리안이라는 자각을 내면적으로 갖는 것이랑, 외면적으로 표출하는 것과의 차이가 오사카와 비교하여 가와사키 쪽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와사키시 제일코리안이 일본인과의 일상적인 교제 속에서 코리안인 것에 대한 보다 억제적인 환경 아래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표출하기 힘든 상황으로 나왔다. 자세한 것은 전 논문(황2006)참조.

12) ①거주인구

가와사키시가와사키구: 2.0%(2000년 기준), 오사카시이구노구: 22.3%(2000년 기준).

②이웃과의 교류

가와사키: 일본인과의 교류가 거의(61%), 대부분 일본인(26%), 가끔 일본인 (10%).

오사카시: 일본인이 많다(7.7%), 반반 (48.3%), 동포가 많다(23.9%).

③직업

가와사키: 자영업 39.4%, 피고용 60.6%, 오사카시: 자영업 70%, 피고용 30%.

④시립초등학교 재적률

않고 있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일코리안 취업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영업이 많아 친족이나 동포관계의 폐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재일코리안끼리 친밀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지역의 재일코리안 보다 오사카시, 특히 이쿠노구의 재일코리안은 호스트사회의 압력과 차별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사카시에서는 에부치(江瀨)가 언급한 유형으로 보면 위의 차별, 굴욕으로부터의 탈출 전술의 세번째인, 명확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 소수민족이 자기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민족축제에서도 살펴보면, 오사카시의 이쿠노민족문화제가 해당된다. 이 축제는 일본사회에서 혹독한 차별과 억압에 의해 빼앗겨 온 민족성을 일본사회에 대항하여 강하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가와사키시의 경우 거주인구로 보아도, 부근에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직장이나 이웃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인이 많다. 이와같이, 가와사키시에서는 자신이 처한 환경, 즉, 오사카시보다 억압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표면적인 공생사회가 되어 생활해야한다. 따라서 한국·조선계 상점가 분포와 식재료의 전시판매 방법, 앙케트조사에 의한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표출방법, 선행연구 및 사회 통계를 통해서 사회적 환경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신, 재일코리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소수민족으로서 지위를 감수하고 호스트사회에도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전통문화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황2006). 즉, 에부치(江瀨)의 두번째 특성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을 민족축제에서 살펴보면, 가와사키시의 아리랑제, 일본 마쓰리가 해당되는데, 에부치의 두번째 특성에서 좀 더 공생관계가 진화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공생이란 관점에서 보면 위 2개의 아리랑 제, 일본 마쓰리에 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도 같이 분류할 수 있지만, 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를 정리해서 보면 오사카시에서는 재일코리안의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재일코리안만의 축제, 호스트 사회에 대항하는 일본인은 참가 할 수 없는 이쿠노민

가와사키시가와사키구 21교 평균1.1%, 재일코리안 아동수가 가장 많은 학교 14.2%,
 2번째로 많은 학교 3%.
 오사카시이쿠노구 19교 평균 24.5%, 재일코리안 아동수가 많은 5교 평균50%이상.
 ⑤민족학급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5교. 개설된 학교 아동 재적 률 90%이상 참가.
 가와사키시 개설되지 않음.
 자세한 것은 전 논문(황2006)참조.

족문화제를 시작으로 다음은 재일코리안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통해서 코리아의 통일을 염원하며, 코리아의 힘을 키워 호스트사회와의 대등한 생활을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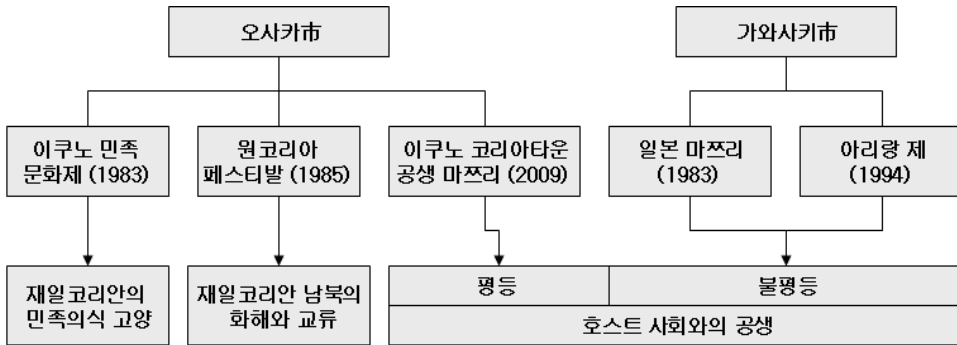


그림 1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위한 원코리아안 페스티벌이 있다.

한편, 오사카시와 다르게 억압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와사키시에서 재일코리안 민족 축제로 처음 창시된 일본 마쓰리는 호스트사회와의 공생사회를 위한 지역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즐기는 친목 의미에서의 축제이고, 아리랑제도 재일코리안과 가와사키시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호스트사회와의 공생이 주목적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현상은 오사카시의 이쿠노지역의 축제이다. 민족축제의 뿌리와도 같은 이쿠노민족문화제는 1983년에 개최되어 2002년에 20회를 끝으로 종영되었다. 이유는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해야 할 과제를 다 수행했다」, 「이미 너무 지쳤다」 정도로 말하여진다.

한편, 이쿠노지역 축제는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일본인은 참가할 수 없었던 축제에서 새롭게 공생마쓰리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재일코리안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롭게 재일코리안 상가와 일본인 상가가 협동을 해서 이쿠노공생마쓰리가 2009년에 개최되었다. 이 축제의 개최는 일본의 한류영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황(2008)에서는 한류를 통해서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생활하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이 무관심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던 일본인들도 친근감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한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한국인·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한국문화에 관심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가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이 있는 상점가로 일본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으며, 주변 상점가는 서로 협력하여, 서로 평등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가 생성되게 되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재일코리

안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의식 때문에, 외부 일본인들은 많이 왕래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한류이후 일본인들의 한국관심으로 이 지역에 한국음식은 물론 한국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본인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것은 서로 대등한 상부상조에 의한, 오히려 재일코리안에 기대어 이 지역 일본인들도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호스트사회와의 진정한 공생사회로 이어지는 단계로 생각된다.

5. 결론

이상으로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의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에 관해서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족축제는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일본사회의 혹독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한을 푸념할 수 있는 장소이자, 민족문화를 접하고 계승하며,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지역에 있어서 호스트사회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두 지역에 있어서 특징을 아래와 같다.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재일코리안 입을 외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 수 있는 장소로 이쿠노민족문화제와 같은 호스트사회에 저항할 수 있는 축제가 생성되었다.

한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의 경우는 오사카시보다 억압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표면적인 공생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족축제도 아리랑제과 일본 마쓰리와 같이 호스트사회와의 공생이지만 불평등한 관계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본마쓰리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평등한 공생관계로는 느낄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오사카시 이쿠노 지역의 축제이다. 오사카시의 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는 이쿠노라는 지역에 일본인이 참여하며 공생관계를 내세우는 마쓰리가 개최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준다. 이것은 일본에서 1세기 넘게 살아온 재일코리안이, 앞으로도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터전에 일본에 대한 무조건 저항, 반대만으로 일본사회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음을, 현실과 동떨어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코리안의 전통문화를 일본인들에게도 알려서, 현실적으로 그들도 공감하고, 그들에게 재일코리안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재일코리안 3세 · 4세 · 5세, 연령이 젊어질수록 부모 한 쪽만 재일코리안인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현실을 다 간과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평등한 공생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이 시기는 일본사회의 한류 열풍과 겹치는 시기로 일본인의 한국·한국인·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 호스트사회와 재일코리안사회가 대등한 관계로, 진정한 공생사회가 형성되는데 한 발자국 다가서는 단계로 기대 할 수가 있다.

【参考文献】

- 飯田剛史(2006) 「在日コリアンと大阪文化－民族祭りの展開」、フォーラム現代社 5 pp.43-56.
- 江口信(1994) 「民族の祭りと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高揚－朝鮮韓人による生野民族文化祭の事例－、井上忠司他2人編、『文化の地平線－人類からの挑－』、世界思想社、pp.253-268.
- 江渕一公 (1982) エスニックバウンダリとスティグマニュエスニシティの視角」、『文化人類2』アカデミア出版 pp.20-33.
- 神奈川のなかの朝鮮編集委員会編(1998) 『神奈川のなかの朝鮮』、明石書店、pp.179-191.
- 川崎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編(1993) 『在日外国人を理解するためのハンドブック第1集』川崎市市役所、pp.5-13.
- 川崎市市民局際室 (1993) 『川崎市外籍市民意識態調査』川崎市、pp.41-58.
- 京都大育部比較育究室 (1990) 『在日韓朝鮮人の民族育意識』明石書店 pp.5-16
- 金徳煥(1985) 「民族のマダン(場)－生野民族文化祭」、『月刊社育』29、pp.29-34
- 杉原達(1991) 「在阪朝鮮人の渡航過程－朝鮮・済州島との関連－」、杉原薫他編『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新評論、pp.215 248.
- 朴在一(1979) 『在日朝鮮人に関する総合調査研究』、新紀元社、pp.1-36
- 黄慧瓊(2001) 「川崎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正月料理を主たる対象として－」、日本文化学報10、pp.341-359.
- 黄慧瓊(2002) 「大阪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第1報)－行事食を主たる対象として－」、日本家政学会誌53-7、pp.671-680.
- 黄慧瓊(2006) 「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差異－大阪市と川崎市の行事食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29、pp.203-218.
- 黄慧瓊(2007) 「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地域的差異(2)－大阪市と川崎市の日常食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34、pp.676-691.
- 黄慧瓊(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36, pp.451-467.

<http://www.ikuno-koreatown.com>

<http://www.wwonekorea.com>

<http://www.city.kawasaki.jp>

<http://www.city.kawasaki.jp>

<http://www.minami.areablog.jp>

要 旨

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民族祭の意味とホスト社会との関係に関して、大阪市と川崎市を中心に考察した。その結果、民族祭は、在日コリアンにとって、日本社会の過酷な差別と抑圧から恨みを解く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と同時に、民族の文化に触れつつ文化を継承し、民族的自覚を呼び起こす役割をしていた。また、両地域においてホスト社会との関係は少し異なりを見せた。両地域における特徴は以下の通りである。

大阪市生野区の場合は、日常生活で、在日コリアンであることを外部に気にせずそのまま表す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そのため、「生野民族文化祭」のようにホスト社会に抵抗できる祭りが生まれた。一方、川崎市川崎区の場合は、大阪市と比べて、より抑圧的な環境にあり、表面的な共生社会にすぎない。それで民族祭も「アリラン祭」・「日本のまつり」のように、ホスト社会との共生を目的としてしている。しかし、それは最初から不平等な関係ではじまったものであり、今日までその状態が続いている。「日本のまつり」という名称からもわかるように平等な共生関係とはいえない。

ここで最も注目されるのは、大阪市生野地域の祭である。大阪市の「生野コリアタウン共生祭」は生野という地域に、日本人が参加し、共生関係をスローガンに掲げて開催されたということに大きな意味をもつ。日本は在日コリアンにとって一世紀以上生きてきた場所であると同時に、これからも子孫がこの地に根を下ろして生きていくはずの場所である。そのため、日本への無条件の抵抗や反対は、日本社会との関係の解決のため、役に立たないと感じていると思われる。在日コリアンの伝統文化を日本人にも知らせ、現実的に共感させ、彼らにその存在価値を認め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在日コリアンの世代が若くなればなるほど、片親のみ在日コリアンである場合が増えつつある現在、このような現実も看過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思われる。このような考えが平等な共生社会の必要性を感じさせたと思われる。また、この時期は、日本社会で韓流ブームと重なった時期であり、日本人の韓国・韓国人・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が肯定的に変わりつつあった。これをきっかけに、在日コリアンとホスト社会が対等な関係としての共生社会を築くための第一歩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され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民族祭、ホスト社会、共生社会、大阪市、川崎市、韓流ブーム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